

KIA, 골든글러브 '최다 수상' 탈환할까

KBO 13일 '골든글러브' 시상식

KBO리그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3일 열린다.

KBO는 이날 오후 5시 10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연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통해 투수, 포수, 지명타자를 비롯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3명)까지 총 10개 부문의 수상자가 결정된다. 단상에 오르는 주인공은 '황금장갑'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ZETT 용품 구매권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골든글러브 투표가 진행됐다.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30세이브·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투수,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5이닝) 이상 수비를 소화한 포수와 야수가 골든글러브 후보가 됐다.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KBO 정규 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도 후보가 됐다.

후보 선정 기준에 따라 KIA에서는 10명이 수상을 노리고 있다.

투수 부문에서는 '에이스' 네일일과 '세이브왕' 정해영 그리고 양현중·전상현이 후보가 됐다.

내야에는 'MVP'들이 포진했다. '한국시리즈

2000년 이후 13차례 '빈 손'...역대 69개로 삼성에 2개 뒤져 네일·소크라테스·최형우·김선빈·박찬호·김도영 등 10명 후보

MVP' 김선빈과 '한국시리즈 5차전 MVP' 박찬호는 각각 2루수와 유격수 부문 후보다. KBO MVP에 빛나는 김도영은 3루수 후보다.

소크라테스와 최원준은 외야수 후보로 명단에 포함됐고, '말형' 최형우는 지명타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KIA는 이번에는 확실한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

트로피 수집을 이어온 김도영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통해 올 시즌 시상식 대미를 장식할 전망이다.

관심사는 김도영의 득표율이다. 김도영은 앞선 KBO 시상식에서 101표 중 95표를 받으면서, 94.06%의 득표율로 2024시즌 최고의 선수가 됐다.

박찬호의 수상여부도 관심사다.

박찬호는 지난해 LG 오지환과 유격수 자리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결과는 우승프리미엄을 더한 오지환이 154표(52.9%)를 얻어 120표(41.2%)의 박찬호를 누르고 시상대에 올랐다.

박찬호는 비록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비수상자 중 유일하게 시상식에 참가해 '2위의 품격'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다.

올 시즌에는 SSG 박성환과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찬호가 프로 첫 골든글러브를 품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KIA는 '최다 수상' 타이틀 탈환에도 속도를 낸다.

해태시절이었던 1982년 차영화(2루수), 김준환(외야수)을 시작으로 골든글러브 역사를 연 KIA는 1991시즌에는 무려 6자리를 독식하는 등 시상식의 단골이었다.

11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2017시즌에도 MVP 양현중을 필두로 안치홍(2루수), 김선빈(유격수), 최형우·버나디나(이상 외야수)가 동시에 수상자가 되면서 역대 69개의 골든글러브를 모았다.

KIA는 하지만 2000년 들어 13번의 시상식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삼성(71개)에 역전을 허용했다.

올 시즌 KIA가 통합 우승은 이뤄지진 않더라도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후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임스 네일일 2.5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올 시즌 KBO를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했지만,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NC 카일 히트와의 진검승부를 이어가지 못했다.

우승 시즌을 보낸 KIA가 어떤 결과를 받을지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KBO '골든글러브' 3루수 부문 수상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손흥민 5호골...역전패는 못막았다

토트넘, 첼시에 3-4로 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가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캡틴' 손흥민의 시즌 5호 골에도 역전패를 당했다.

토트넘은 9일 열린 첼시와의 2024-2025 EPL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2-0으로 앞서다 3-4로 무릎을 꿇었다.

손흥민은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팀이 2-4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시간 시즌 5호골(정규리그 4골 포함)을 터트렸지만, 팀의 역전패로 빛이 바랬다.

토트넘은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첼시의 왼쪽 풀백 마르크 쿠쿠레야가 빌드업 과정에서 넘어지자 브레넌 존슨이 재빨리 넘어져 쇠도한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크로스를 내줬고, 도미니크 솔란케가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추가골도 6분 만에 터졌고, 주인공은 데얀 쿨루세브스키였다.

첼시의 쿠쿠레야가 또다시 미끄러지며 볼 처리를 제대로 못 한 사이 볼을 빼앗은 토트넘의 쿨루세브스키가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쏘았다. 두 차례나 넘어지는 실수를 저지른 쿠쿠레야는 곧바로 벤치로 달려가 축구화를 갈아신었다.

첼시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17분 쿠쿠레야의 패스를 받은 제이든 산초가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만회골에 성공하며 토트넘을 압박했다.

전반을 2-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14분 이브 비수마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반칙을 범하며 옐로카드를 받고 페널티킥을 내줬고, 후반 16분 페널티킥 키퍼 나선 첼시의 톨 팔머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토트넘은 후반 28분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역전



경기가 끝난 뒤 역전패를 아쉬워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골을 내주더니 후반 39분 팔머에게 페널티킥으로 썩기골을 허용하며 2-4로 끌려갔다.

후반 추가시간 막판 손흥민이 골 맛을 봤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제임스 매디슨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파고들며 내준 킥백을 손흥민이 골 지역 정면 부근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방향을 바꿔 골 그물을 흔들었다. 손흥

민의 리그 4호 골이자 시즌 5호 골의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치른 AS로마(이탈리아)와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2-2무)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에 성공한 뒤 열흘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끝내 동점골 사냥에는 실패하며 역전패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연합뉴스

김주형, 세계1위 세플러 벽에 또...

PGA 히어로 월드 챔피언지 준우승

김주형(사진)이 또 한 번 세계랭킹 1위 스키티 세플러(미국)의 벽에 막혀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김주형은 9 바하마의 올버니 골프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챔피언지(총상금 50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25언더파 263타로 우승한 세플러에게 6타가 뒤진 김주형은 4라운드 합계 199언더파 269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타이거 우즈(미국)가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챔피언지는 PGA 투어 정규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 20명이 출전하고 대회 성적에 따라 세계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

2022년에 이어 이 대회 두 번째 출전한 김주형은 2022년 공동 10위에 이어 두 번 모두 상위권에 올라 PGA 투어 최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김주형은 이날 최종 라운드를 선두 저스틴 토머스(미국)에게 2타, 세플러에게 1타 뒤진 3위로 시작해 역전 우승의 기대가 컸다.

10번 홀까지 김주형은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잡아내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쳤다.

세플러가 10번 홀까지 5타를 줄이며 선두로 치고 나갔지만, 김주형은 2타차로 추격을 이어간 것이다.

하지만 김주형은 11번 홀(파5) 보기로 빠졌고 김주형이 13번 홀(파4) 버디로 만회했지만, 세플러는 13번, 14번 홀(파4) 연속 버디를 때려



간격을 더 벌렸다.

김주형은 16번 홀(파4) 보기로 더는 세플러를 따라잡을 동력을 잃었다.

세플러는 16번 홀(파4)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 탓에 티샷을 웨이스트 지역으로 날리는 실수에도 이날 8번째 버디를 잡아내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주형은 지난 6월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세플러와 연장전까지 벌여 준우승한 적이 있다.

이번 시즌 마스터스를 포함해 8승, 그리고 플레이오프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낸 세플러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했던 토머스는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3위(18언더파 270타)로 대회를 마쳤다. 임성재는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9위(8언더파 280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남 수영 꿈나무, 유소년 전국대회 14개 '금 물살'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제9회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대회'에서 빛나는 활약으로 총 1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양체육관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는 580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여초부 평영50m와 100m에서 문승유(영암초 5년)가 2관왕을 기록했다. 여초부 자유형50m와 100m에선 임지율(여수현려초 6년)이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유부에서는 김하울(화순오성초 3년)이 평영50·100m에서 1위를 기록했다.

화순오성초 조운호·박태민·유하진(이상 6년)·심재훈(5년)은 남초부 계영200m와 혼계영200m에서 2개의 금메달을 합작했다.

남중부 배영 종목에서는 이은성(전남체중 2년)이 50·100m 정상에 올랐다.

김태영(여수문수중 3년)은 남중부 자유형200m 1위에 오른 뒤, 같은 학교 박은결·김영서(이상 3년), 국상원(2년)과 함께 출전한 계영2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영암초 문승유

여수현려초 임지율

장운(영암초 6년)은 남초부 배영50m, 이재원(목포항도초 4년)은 남유부 자유형50m에서 금메달을 더했다.

전남수영연맹 진만근 전무이사는 "현재 선수들 기량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 소년체전 전망이 밝다. 훌륭한 실력을 가진 유소년부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꼭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 KBF바둑 정규리그 '압도적 1위'

9승1패...신현석·한유정 다승상

전남바둑이 2024 KBF바둑리그 정규리그에서 1위에 올랐다.

기명도 단장, 신철호 감독, 남자선수 김진우·신현석·심해솔·홍근영, 여자선수 김현아·이루비·한유정으로 구성된 전남바둑은 2024 KBF바둑리그 정규리그에서 9승1패로 1위를 기록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한 2024 KBF바둑리그는 전국 11개 팀이 참가, 남자 3명과 여자 2명으로 구성된 5인 단체전으로 지난 10월 1차 경기(1-4R)부터 11월 2차 경기(5-8R), 지난 8일 마무리된 3차 경기(9-11R)까지 총 11라운드 풀리그를 치

렀다.

이번 대회에서 9승 1패를 기록한 신현석과 한유정은 같은 승수의 김정선(부천), 정하음(부안)과 함께 각각 남·녀 다승상을 받았다.

우승을 이끈 기명도 단장은 "열심히 경기에 임해 준 선수들의 열정과 끈끈한 팀워크가 이루어낸 결과"라며 "올해 전국체전 성적이 다소 아쉬웠는데 KBF 정규리그에서 우승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규리그 2위는 부천시(8승 2패·개인승수 36), 3위는 부안북은노을(8승 2패·개인승수 35), 4위는 중정북도(6승 4패·개인승수 32), 5위는 부산이봉장학회(6승 4패·개인승수 31)가 차지했다.



이들 상위 5개 팀은 스폰서로 토너먼트로 포스트 시즌 경기를 갖는다.

'단판승부'로 진행되는 포스트시즌은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성남 판교 K바둑스튜디오에서 치러진다. 이어 26일부터 펼쳐지는 챔피언결전전에서 3번의 승부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